

한국 청소년축구 애정상 도전

U-16(4일)·U-19(5일) 애 선수권 참가

(16세 이하) (19세 이하)

대결을 시작으로 7일 호주, 9일 중국과 각각 격돌한다.

마지막 모의고사이지만 대표팀은 기성용(서울)과 구자철(제주) 등 K-리거와 조영철(요코하마FC), 김동섭(시미즈S필스) 등 일본에서 활약 중인 주축 선수들이 소속팀 일정 때문에 합류하지 못한다. 일부 아마추어 선수들 역시 전국체전에 참가해야 해 따라나설 수 없다. 대회 참가 엔트리 20명 중 프로 소속은 골키퍼 김승규(울산) 뿐이며 대부분이 대학생이다. 조 감독은 “정상적인 리허설은 어렵지만 우리의 전술과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 아직 고민하고 있는 몇몇 포지션과 선수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참가 후 16일부터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정예 멤버를 불러모아 마지막 담금질을 할 예정이다.

한국은 2006년 대회에서 8강에 그쳤지만 이듬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했다. 3년 가까이 준비했고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서 정작 조별리그 그룹과 조자 실패해 한국축구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과 가능성을 되찾아야 한다. 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19세 이하(U-19) 대표팀은 이달 말 사우디에서 개막하는 2008 AFC U-19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갖는다.

조동현은 5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U-19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3일 오후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서 역시 4강 안에 들어야 내년 이집트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한국은 2004년부터는 2회 연속 8강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에서 4위 이상을 해야 내년 나이지리아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U-17) 월드컵 본선 출전 자격을 얻는다.

한국은 2006년 대회에서 8강에 그쳤지만

이듬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은 개최국 자

격으로 자동 출전했다. 3년 가까이 준비했고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서 정작 조별리

그 그룹과 조자 실패해 한국축구의 미래에 어두

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

신감과 가능성을 되찾아야 한다. 조동현 감독

이 이끄는 19세 이하(U-19) 대표팀은 이달

말 사우디에서 개막하는 2008 AFC U-19 선

수권대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갖는다.

조동현은 5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U-19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3일 오후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서

역시 4강 안에 들어야 내년 이집트에서 열

리는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2006년 대회에서 8강에 그쳤지만

이듬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했다. 3년 가까이 준비했고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서 정작 조별리

그 그룹과 조자 실패해 한국축구의 미래에 어두

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

신감과 가능성을 되찾아야 한다. 조동현 감독

이 이끄는 19세 이하(U-19) 대표팀은 이달

말 사우디에서 개막하는 2008 AFC U-19 선

수권대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갖는다.

조동현은 5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U-19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3일 오후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서

역시 4강 안에 들어야 내년 이집트에서 열

리는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2006년 대회에서 8강에 그쳤지만

이듬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했다. 3년 가까이 준비했고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서 정작 조별리

그 그룹과 조자 실패해 한국축구의 미래에 어두

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

신감과 가능성을 되찾아야 한다. 조동현 감독

이 이끄는 19세 이하(U-19) 대표팀은 이달

말 사우디에서 개막하는 2008 AFC U-19 선

수권대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갖는다.

조동현은 5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U-19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3일 오후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서

역시 4강 안에 들어야 내년 이집트에서 열

리는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2006년 대회에서 8강에 그쳤지만

이듬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했다. 3년 가까이 준비했고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서 정작 조별리

그 그룹과 조자 실패해 한국축구의 미래에 어두

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

신감과 가능성을 되찾아야 한다. 조동현 감독

이 이끄는 19세 이하(U-19) 대표팀은 이달

말 사우디에서 개막하는 2008 AFC U-19 선

수권대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갖는다.

조동현은 5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U-19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3일 오후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서

역시 4강 안에 들어야 내년 이집트에서 열

리는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2006년 대회에서 8강에 그쳤지만

이듬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했다. 3년 가까이 준비했고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서 정작 조별리

그 그룹과 조자 실패해 한국축구의 미래에 어두

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

신감과 가능성을 되찾아야 한다. 조동현 감독

이 이끄는 19세 이하(U-19) 대표팀은 이달

말 사우디에서 개막하는 2008 AFC U-19 선

수권대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갖는다.

조동현은 5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U-19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3일 오후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서

역시 4강 안에 들어야 내년 이집트에서 열

리는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2006년 대회에서 8강에 그쳤지만

이듬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했다. 3년 가까이 준비했고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서 정작 조별리

그 그룹과 조자 실패해 한국축구의 미래에 어두

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

신감과 가능성을 되찾아야 한다. 조동현 감독

이 이끄는 19세 이하(U-19) 대표팀은 이달

말 사우디에서 개막하는 2008 AFC U-19 선

수권대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갖는다.

조동현은 5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U-19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3일 오후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서

역시 4강 안에 들어야 내년 이집트에서 열

리는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2006년 대회에서 8강에 그쳤지만

이듬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했다. 3년 가까이 준비했고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서 정작 조별리

그 그룹과 조자 실패해 한국축구의 미래에 어두

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

신감과 가능성을 되찾아야 한다. 조동현 감독

이 이끄는 19세 이하(U-19) 대표팀은 이달

말 사우디에서 개막하는 2008 AFC U-19 선

수권대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갖는다.

조동현은 5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U-19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3일 오후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서

역시 4강 안에 들어야 내년 이집트에서 열

리는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2006년 대회에서 8강에 그쳤지만

이듬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했다. 3년 가까이 준비했고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서 정작 조별리

그 그룹과 조자 실패해 한국축구의 미래에 어두

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

신감과 가능성을 되찾아야 한다. 조동현 감독

이 이끄는 19세 이하(U-19) 대표팀은 이달

말 사우디에서 개막하는 2008 AFC U-19 선

수권대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갖는다.

조동현은 5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축구연맹(AFF) U-19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3일 오후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서

역시 4강 안에 들어야 내년 이집트에서 열

리는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2006년 대회에서 8강에 그쳤지만

이듬해 열린 FIFA U-17 월드컵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했다. 3년 가까이 준비했고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서 정작 조별리

그 그룹과 조자 실패해 한국축구의 미래에 어두

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

신감과 가능성을 되찾아야 한다. 조동현 감독

</div